

## 복색도해(服色圖解)

古 381.3-2

八幡與一 記録.圖解 ; 小杉榎村 校正 ; 今泉定介 編.- 日本木版本. - 東京 : 吉川弘文館, 1902(明治 35) .2卷2冊

편지(編旨).....

일본 복장은 상고시대로부터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본서에서는 남자의 복장에 관하여 설명되었으며, 중고시대에 와서 연령, 계급, 귀천, 직업에 따라, 형식, 채색, 문양, 천, 부속물 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 두루마기, 도복, 상하의, 속옷 등의 그림을 예시하였으며, 나아가 도검(刀劍)등의 장식에도 언급하였다.

복장이나 도검류도 소박함에서 점차 화려함으로 바뀌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관(冠)-관은 관등에 따라 쓰이는 천에 다름이 있었다. 5위 이상은 비단을 쓰도록 되었으나, 그 후 비단의 쓰임이 끊어졌다고 하나, 일부분에서 쓰였고, 관 뒤에 늘어뜨린 영의 끝에 마름무늬의 수를 놓았다. 6-8위는 관을 쓰지 아니하고 두건을 썼으며, 관은 점차 희귀하게 되었다.

포(袍)-두루마기이며 5위 이상은 상수리 흑색 염색, 겨울은 비단을 겹감으로 하고 안감은 명주로 하였으며 조복(朝服)으로 입었고, 6위 이하는 입을 수 없었다. 관청내외의 여러 관리는 옅은 관복을 입었다.

두루마기의 염색--문양은 여문양, 윤무당초가 있고, 염색은 꼭두서니 뿌리에서 추출한 어두운 적색이며, 근세에 제조되었으나 희귀하다. 따라서 소방염색을 쓰고 있으나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꼭두서니 염색 옷을 착용하나, 근대에 와서는 짙은 적색으로 염색한 것을 입었다.

반비(半臂)-반팔 옷으로 4-5위가 착용하며, 겨울은 명주 천을 쓰고, 여름은 남색, 문양은 없었으나, 삼중다기수란 문양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하습(下襲)-속에 입는 겹옷을 말한다. 겉은 겨울에는 풀 먹인 명주, 안은 검은 명주를 썼고 이 명주를 척축중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배자금으로 염색한다. 지금도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있으며, 노인은 부드러운 명주를 사용한다.

하습은 명주를 쓴다고 하였으나, 근세에 와서 수양버들 문양의 비단 감을 쓰기도 한다. 근간 어느 가정에서 누런 수양버들 문양의 하습이 다시 흥해졌다고 한다.

단(單)-홀옷이며 마름 문양의 붉은 비단이 노약 공통으로 쓰였다. 장년은 풀을 먹인 명주를 감으로 하고, 나이가 꽤 많은 노인은 흰색의 홀옷을 입었다.

대만(大幔)-안이 없는 옷속옷으로 겨울은 흰 감이며, 여름은 붉게 염색한 것을 감으로 한다. 속옷이므로 홀옷 아래에 입고, 여름은 땀을 흡수하는 등 예부터 입었다. 근세에 와서는 홀옷, 속옷의 구분 없이 입는 옷이 나왔다.

표고(表袴)-겉에 입는 바지이다. 겉감은 겨울 여름 구별 없이 흰 명주를 쓴다. 젊은 이는 풀 먹인 명주를 쓰고, 노인은 부드러운 명주에 수양버들 문양을 사용했다.

대구(大口)-허리 둘레가 큰 바지를 말한다. 붉은 색명주를 쓰며, 부드러운 명주는 노약 공통으로 썼다. 연로한 사람은 흰 명주를 사용했다.

석대(石帶)-허리에 띠는 띠인데 돌조각으로 장식되었다. 4,5위는 모난 돌 조각, 둥근 돌 조각으로 장식한 띠가 통용한다. 마뇌, 백석, 지방의 이름 난 돌, 물소뿔, 옥돌 등을 썼으며, 물소, 품질이 낮은 납석은 6위 이하에 썼다.

도검(刀劍)-장식한 도검은 귀족이 이를 패용했고 나전으로 장식한 것도 있었다. 보통으로 쓰는 검도 나전으로 장식하였는데, 나전은 옷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금분을 뿌려 광택이 나게 한 것이다. 도검을 장식하여 본래의 무기라는 개념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야검(野劍)-야검의 종류는 많으며 여러 가지 장식의 야검이 있다. 입는 관복에 따라 장식된 야검을 골라 패용했다. 장식은 칼집에 하는 것이며 자색 가죽, 남색 가죽을 쓰며, 장식은 나전을 한 것이 보통이다. 실을 감아 장식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주로 무기로 썼다고 한다.

홀(笏)--홀은 5위 이상은 백목(白木)을 쓴다. 도토리나무, 벗나무, 떡갈나무, 등을 깎아 만든다. 중고 이래 상아를 썼으나 보통으로는 나무를 썼다.

회선(檜扇)--전나무를 얇게 깎아 실로 엮은 부채. 15세기까지는 삼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했고, 앞면에는 채색화, 뒷면에는 나비, 새 따위를 그렸으며 오색실로 엮었다.

/ 정 세 영